



대림H&L

LPG선 2척을 신조 발주

대림H&L(대표 기의석)이 최근 일본조선소에 5000m³급 LPG선 2척을 신조 발주했다.

최근 발표된 신조선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대림 H&L은 일본 SHITANOE SHIPYARD에 5000m³급 LPG선 2척을 2011년 6월과 8월에 각각 인도하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했다. 이번 계약은 이미 지난 4월에 체결됐으며 선가는 총 4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500-6,400m³급 LPG선 총 8척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H&L은 과거 SHITANOE SHIPYARD에 LPG선 5척을 발주해 건조한 바 있다. 대림 H&L은 주로 일본과 싱가포르간 LPG를 운송하고 있으며 유럽에도 일부 운항을 하고 있다.

한편 대림H&L은 SPP조선에 5만DWT급 MR 프로젝트 탱커 2척을 발주해 건조 중이다. 척당 선가는 5,200만달러로 올해 초 발주됐으며 납기는 2011년 1/4분기다.

C&그룹

내년 상반기에 국제크루즈 개설

C&그룹(회장 임병석)은 부산-모지간 국제 카페리항로 개설·운영과 동북아 크루즈 추진을 위해 지난해 5월 C&크루즈(대표이사 정정민)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5월23일 개최된 C&크루즈사업 설명회에서 재무투자자인 City Bridge사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크루즈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C&크루즈 정정민 대표는 “현재 객실 800실에 여객정원이 1,700명정도되는 6만톤급 크루즈선을 검사하고 있다. 늦어도 올해 말이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루즈선을 도입해 내년 4월까지 인천항에 정박시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크루즈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고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동절기에는 일본 모지항으로 하는 동북아 크루즈를 계획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인천항을 기점으로 중국 대련, 천진, 청도, 연태, 상해, 제주, 부산, 일본 모지 등을 선택적으로 기항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일본 모지를 기점으로 부산, 제주, 일본 오키나와, 나가사키, 홋카이도, 니카타 등을 선택적으로 기항하는 항로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하절기에는 인천-상해-부산-모지-니카타-홋카이도-블라디보스톡-베링해를 연결하는 9박10일짜리 장기항로도 구상중이다.

C&크루즈는 또 월드와이드 크루즈를 서비스하는 메이저 크루즈 선사들과 얼라이언스를 체결, 일본까지만 기항을 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와 이용객을 스위치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STX팬오션

올 1/4분기 매출액 1조8530억원

국내 최대 벌크선사 STX팬오션(대표이사 이종철 부회장)은 1/4분기에 시황변동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선복 확보와 화물계약을 적절히 대응한 결과, 매출 1조8,530억, 영업이익 2,754억 규모(국제회계기준 매출 22억5,000만불, 영업이익 2억8,700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4.3%, 246.5% 증가했다. 분기단위로는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기록했다.

벌크선 시장의 급등으로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STX팬오션은 기존 핵심 사업분야인 벌크선 부

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벌크선 부문에 집중되어있는 역량을 탱커, 컨테이너선 등 비벌크선 부문으로 분산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7년 매출 실적 기준으로 벌크선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STX 팬오션은 작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벌크선 시황의 고공행진이 향후에도 중국의 철강 수요량 증가와 인도의 산업화 등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지속적인 호황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로 삼아, 시황 변동 등 외부변수의 영향에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비벌크선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코카캐리어스

한국해양대에 선박모형 기증



유코카캐리어스(대표 얀 에빈 왕)는 최근 한국해양대학교에 바이킹 선박모형을 기증했다. 한국해양대 해양박물관은 지난 5월30일 바이킹선 모형인 '오세베르그호' 기증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작나무를 주재료로 한 모형선박은 2007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 배의 원형인 오세베르그호는 820년경에 만들어져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바이킹

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바이킹선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대학 측이 전했다.

기증자는 유코 카 캐리어스(EUKOR Car Carriers Inc.)의 얀 에빈 왕(Jan Eyvin Wang) 사장으로 그는 지난 2005년에도 자동차운반선 모형 선박을 한국해양대에 기증한 바 있다.

장금상선/씨앤라인

부산-시코쿠항로 공동배선

장금상선(대표 정태순)과 씨앤라인(대표 황정규)은 오는 7월부터 '부산-시코쿠·세토우치' 항로에서 공동배선을 전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8일부터 약 한달간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이 항로는 당초 씨앤라인이 132TEU급 Korex Pusan호를 투입해 이요미시마·마츠야마·이미지-부산-마츠야마·이미지·이와쿠니-부산-이요미시마순으로 8자형 배선을 주간 정요일로 서비스하고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장금상선이 255TEU급 Sinokor Ulsan호를 투입해 이요미시마·토쿠시마-부산-미즈시마·이와쿠니·히로시마·이요미시마-부산-이요미시마 순으로 주간 정요일로 서비스하는 등 거의 유사한 항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선사는 이번 항로합리화를 통해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되게 되었다.

통합된 항로에는 장금상선의 Korex Pusan호 1척에 의해 이요미시마·이미지·마츠야마·이와쿠니·히로시마 등 일본 5개항 발착 서비스만 실시하게 된다.

다만, 6개월씩 양사가 번갈아 항로를 운영하게 되며, 최초 6개월간은 장금상선이 운항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씨앤라인은 새롭게 히로시마서비스



를 개시하게 됐으며, 장금상선은 이마지·마츠야마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이들 두 선사는 이번 항로통합으로 투입선 축소에 따른 운임안정화는 물론 반선에 따른 용선료 절감, 항만비용과 병커가 등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된 운항루트는 부산-이요미시마/토쿠시마/이마지/마츠야마-부산-이요미시마/미즈시마/이와쿠니/히로시마-부산 순이다.

진양해운

평택-청도간 카페리항로 취항



진양해운(사장 홍승두)이 평택과 청도를 오가는 첫 국제 카페리선 취항을 성공리에 마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

진양해운은 지난 5월27일 평택항 국제카페리부두에 접안한 ‘퀸 칭다오호’ 선상에서 처녀취항을 기념하는 오찬회를 열었다. 이날 오찬회에는 평택 지방해양항만청 이병주 청장,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정태순 회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양병관 사장, 평택 컨테이너터미널 한동희 사장, 동방 장세강 사장,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영섭 회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연운항훼리 이정형 평택지사장 등 평택지역 소재 해양항만청과 CIQ기관, 협력업체, 하

주, 여행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의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선장·기관장의 안전항해 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참가자들은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기부해 평택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쓰기로 했다.

주 3항차 평택항과 청도항을 연결하게 되는 퀸 칭다오 호는 1만6,500톤급 카페리선으로 여객 750명과 컨테이너 화물 200TEU를 운송할 수 있으며 선내에 사우나, 노래방, 헬스시설, 음식점, 회의실, 면세점 등을 갖추고 있다.

퀸 칭다오호는 과거 창명해운이 개설한 군산-청도항로에 투입됐던 선박으로 진양해운이 5년간 용선해 40여일간의 대대적인 내부 수리를 거쳤다. 이날 오후 5시에 평택항을 출발한 퀸 칭다오호에는 여객 230명이 탑승했으며 컨테이너화물 12개가 실렸다.

퀸 칭다오호는 5월28일 오전 9시 청도항에 입항했으며 청도항만국 및 시관계자와 물류업계, 중국 언론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이 열렸다. 진양해운 홍승두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도에 항로를 개설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항로를 개설할 것”이라 말했다.

KSS해운

LPG 운반선 1척 신조발주

KSS해운(대표 윤장희)은 지난 5월29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7만8,000㎥급 LPG 운반선 1척을 963억3,20만원에 2012년 6월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건조한 7만8,000㎥급 대형 LPG 운반선 3척을 운항하고 있는 KSS해운

은 중장기 선박 확보계획에 따라 대형 LPG선 1척을 추가로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주한 LPG선은 길이 230m, 폭 36.6m에 5만DWT급 대형가스선으로 가스 7만 8,500m³를 적재하고 16.5노트의 속력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지난 2005년 12월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인도받은 7만8,000m³급 LPG 운반선 'Gas Friend' 호와는 자매선이다.

KSS해운은 이번 발주로 발주잔량을 총 3척으로 늘리게 됐다. KSS해운은 지난 2006년 9월 일본 Shitanoe조선에 8,500DWT급 케미컬탱커 1척을 24억5700만엔에 2009년 12월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했으며, 2007년 11월 Shitanoe조선에 다시 케미컬 탱커 1척을 17억 9900만엔에 2010년 6월에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해 건조중이다.

KSS해운은 또 케미컬 탱커 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6,500DWT급 중급 케미컬탱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SS해운은 현재 7만8,000m³급 LPG 운반선 3척, 3만5,420m³급 LPG선 1척, 5,000m³급 LPG선 1척, 3500m³급 LPG선 2척 등 총 7척의 LPG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3,200-3,900DWT급 케미컬탱커 선대 6척도 운항하고 있다.

팬스타라인닷컴

부산-일본간 국제크루즈서비스 개시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 회장)은 지난 4월2일 팬스타 허니호를 투입, 부산을 모항으로 남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연안크루즈를 시작해 대한민국 최초의 크루즈 시대를 연데 이어 5월30일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제크루즈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 두 달간 통영, 여수, 완도, 제주 등 남해

안의 기항지 순항과 부산항에서의 원나잇 크루즈에서 얻은 뜨거운 호응에 힘입은 것으로 일본의 히로시마, 벳부, 마쓰야마 등 주요 온천명소를 순항하는 최초의 국제적 크루즈 출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제 크루즈를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이동해야 하는 Flight & Cruise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편리하게 국제 크루즈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늘 외국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해있던 부산항 또한 국제 크루즈 시대를 여는 모항으로서의 기지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팬스타 크루즈의 이번 5월 30일 항차에는 현재 약 210명의 예약 되어 있으며, 히로시마와 마쓰야마를 기항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www.hanjin.com)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외형확장과 新 성장동력인 해운물류 연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5월13일 초대형 유조선(VLCC Verry Large Crude Carrier) 2척을 발주했다고 발표하고, 현재 20%대인 벌크사업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싱가포르에 탱커 전문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올해 4월 자회사인 거양해운을 흡수 합병하는 등 사업역량 확보와 함께 지배선대 확장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약 20여척의 중장기 용선선박을 인도 받는 등 약 30여척의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을 포함하여 현재 100여척의 벌크선대를 향후 5년 내에 약 250척 규모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테이너사업 부문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해운시장의 선박 대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 2월 1만3,000TEU급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12년 이상의 장기용선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한진해운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컨테이너선복량 약 35만TEU의 세계 11위 수준(AXS-Alphaliner 세계 해운물류 통계기관의 2008년 3월 기준)을 2012년까지 현재 운영선박 대비 90%로 대폭 증가한 약 67만TEU로 세계 7위권(AXS-Alphaliner 2008년 3월 Order book 기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배 선단 확대를 통해 컨테이너와 벌크 사업부문의 핵심역량을 계속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신 성장동력인 해운물류 연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상선

올 1/4분기 영업이익 1,728억원

현대상선(대표 김성만, www.hmm21.com)이 올해 1/4분기 영업이익 1,72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대폭 향상된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현대상선이 발표한 1/4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1조 6,020억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728억원으로 198.4%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은 721억원으로 지난해 90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러한 실적은 △초대형 선대의 지속적인 투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송능력과 △주요 기간항로 및 신규 시장에서의 영업망 확대·강화 노력 △컨테이너 부문에서의 운임률 회복 △고비용 저효율 서비스 정리 등 원가절감 △드라이벌크 및 유조선

부문 업황 호조세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보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부문별 매출액은 컨테이너 부문 9,864억원, 벌크 및 기타 부문 6,156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영업이익을 보면, 컨테이너 부문은 지난해 117억 적자에서 올해 37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벌크 부문은 전년보다 93.8% 증가한 1,347억원으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22%의 두드러지는 실적을 보였다.

현대상선은 “고유가 등 각종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은 그간 추구해온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이 주효한 것”이라며, “신규 수익원의 발굴과 항로 및 선대의 최적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벌크 부문에서의 수익 극대화 노력을 계속해 향후 더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이 신흥시장에 6개 신규항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설하며 ‘공격경영’에 나섰다. 현대상선은 아시아-호주 간에 2개의 신규항로를 개설, 5월11일과 12일 대만 카오슝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각각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아시아-호주 간 신규항로는 각각 중국과 호주를 바로 연결하는 FA2(Far East-Australia 2), 일본에서 출발, 중국을 거쳐 호주로 기항하는 FAL(Far East-Australia) 등 2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체육대회 및 해성제 개최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08년도 체육대회 및 해성제를 개최하였다.

목포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신철호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육대회를 통하여 각자의 심신단련은 물론 선후 배와 동기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교직원들 과도 가깝게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대학 생활을 보다 밝고 활기 있게 가꾸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나친 경쟁보다는 상호 격려와 화합을 먼저 생각하고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여 각자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경기를 시작으로 축구, 탁구, 농구, 발야구, 배구, 배드민턴, 릴레이 마라톤, 철인3종경기, 단체줄넘기, 100M달리기, 400M달리기 등으로 치뤄 졌으며, 축제의 한마당인 제22회 해성제 행사는 22일부터 노래자랑, 동아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메이크업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진행되었다.

부산항만공사

인센티브제도 개편 연구용역

부산항의 볼륨 인센티브제도가 환적화물의 실질적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5월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운영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항 환적화물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BPA의 의뢰로 동명대 항만물류산업연구소(소장 박남규)가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현행 볼륨 인센티브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증, 환적물동량과 인센티브간의 시물레이션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주요항만들의 인센티브 현황과 물량증대 사례를 조사하고 선사별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소형선사별 지원방안을 강구, 최적의 인센티브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BPA는 올 연말쯤 연구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개선된 인센티브안을 참고해 부산항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볼륨인센티브 제도는 전년도 5,000TEU 이상을 처리한 선사를 대상으로 실적 인센티브와 물량증가 인센티브를 합산, 적용해왔으며 BPA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사 등에 총 43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한국중소형조선협회

창립총회 갖고 정식 출범

경남, 전남, 부산, 울산 등의 11개 중소형 조선소와 20여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경남도 이창희 정무부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중소형 조선협회’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남 통영에 소재한 21세기조선 황계주 대표이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임했으며, 전남 목포의 C&중공업 김기희 부사장을 부회장으로, 21세기조선 문귀호 회장을 고문으로 선출했다. 이어 설립취지문을 발표하고,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정관심의,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경남도 이창희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중국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2015년 세계조선 1위 강국부상과 국수국조(國需國造)정책(중국의 화물은 중국 선박으로 수송하고, 중국선박은 자국에서 건조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등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 경쟁력의 위협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후발조선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화된 선종개발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황계주 초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중소



형조선협회는 앞으로 조선기자재 관련 산업과의 연계협력해 상호 WIN-WIN 체계구축, 인력수급, 보건복지, 환경문제 등 공동협력 방안 모색, 세계 조선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대비한 능동적인 역량 함양 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 운영사 대표자 간담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6월4일 월드마린센터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물동량 증대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컨공단 정이기 이사장은 “수출입 경기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경쟁항만의 급성장, 최근 연료비 상승에 의한 선사 간 공동운항 등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으로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목표물량인 210만TEU 달성을 위해 공단·운영사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물량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항만 운영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운영사들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고객유치를 위한 항만마케팅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해기사협회 제28대 협회장에 민홍기씨 당선



한국해기사협회 제28대 협회장에 민홍기씨가 당선됐다. 한국해기사협회는 5월29일 부산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4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선거를 실시하고 참석 대의원 79명 중 46명의 지지를 이끌어낸 민홍기 후보를 제28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협회장 선거는 박병의 승부가 예상됐으나, 민홍기 회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하면서 싱겁게 판가름이 났다. 1번 추형호 후보는 31표, 2번 태길산 후보는 0표, 3번 유명운 후보는 2표, 4번 민홍기 후보는 46표를 각각 득표, 민홍기 회장이 58% 과반수 지지를 받았다.

민홍기 회장은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선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치열한 2차례의 선거를 거쳤고 한층 더 성숙됐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두 귀를 열고 여러분의 중지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협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당선사를 가름했다.

민 회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한차례 맞붙어 추형호 후보에 4표차로 석패한 바 있는데 1년만에 다시 치러진 본 선거에서는 추 후보와 15표차로 비교적 쉽사리 회장에 당선됐다. 민홍기 회장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25기로 범양상선(STX팬오션)에서 승선 근무를 했고 범양상선 공무감독을 거쳐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정처장, 인천분원장, 한국선원복지협회(복지고용센터) 이사,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총무, 사무국장, 해양소년단 부산연맹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해기사협회와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민 회장은 공약사항을 통해 해기사협회장 경영목표로 친목도모와 고객만족, 정책연구개발, 회원확보 및 재정확충 등을 추진하고 특히 협회 활동과 해기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해기사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북항 재개발지역에 회관신축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원양항해 취항식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5월7일 2008학년도 1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실습을 시작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5월7일 오전 10시30분 한국해양대학교내 부두앞에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습선 한바다호와 한나라호의 원양항해 취항식을 개최했다.

동남아 4개국 6개항을 27일간의 일정으로 기항하는 이번 원양항해실습에는 대만 카오슝해양대학교 교수 및 학생 24명이 한바다호에 동승해 승선실습 교육에 참여하며 양교간의 우호증진 및 체계화된 우리나라 해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한바다호는 부산을 출항해 말레이시아(포르클랑)→대만(카오슝)→일본(가고시마)을 차례로 기항한 후 부산에 귀항할 예정이며 한나라호는 부산을 출항해 중국(해남도)→중국(청도)→일본(동경)을 차례로 기항한 후 부산항에 귀항할 예정이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주도할 우수 해기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에 걸쳐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원양항해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부원장 원장직 대행



국내 유일의 해운항만수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FRI) 이정환 원장이 6월5일부로 퇴임함에 따라 강종희 부원장이 당분간 원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이정환 원장은 지난 2005년 9월23일 3년 임기의 제5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 원장은 지난 4월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할 때, 사표를 제출했으며 최근 사표가 수리돼 잔여 임기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6월5일 이임식을 가졌다.

이 원장 사임으로 KMI는 강 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아직까지 신임 원장 인선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어 당분간 강 부원장 대행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MI 강종희 부원장은 선임연구원으로 해운물류연구본부 본부장직을 수행하다가 지난 3월1일 부로 부원장에 취임했다.

강 부원장은 서울대 해양학과 출신으로 울산해운, 범양상선, 삼미해운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1984년 6월부터 KMI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 저서와 100여편이 넘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국해운산업 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해 왔다.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극 신임원장 취임

한국해양연구원 강정극 책임연구원이 제7대 해양연구원 원장에 선임됐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일 기초기술연구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결과에 따라 신임 원장에 강정극 박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강정극 원장은 고려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올레앙대학(Orleans Univ)에서 광물자원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평가단 단장, 해양연구원발전협의회 회장, 정부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